

김별아의 '문학과 삶'



신(新) 독서의 계절

지금 내 잡자리 머리맡에는 서너 권의 책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다. 내용의 분야도 제각각, 장르도 제각각, 읽어가는 속도도 제각각이다. 살금살금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손에서 뻗어 내키는 대로 그것들 중 하나를 골라잡는다.

어떤 것은 수면제요 자장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각성제요 장군죽비가 되기도 한다. 책이 자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멋들어진 서재의 튼튼한 책꽂이가 아니다.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읽을 독자의 손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나 책이 있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심지어 에어컨이나 스토브보다 값도 싼데도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곳에 앉아서 사막은 맥주 서너 병값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책들은 고작하여 두어 병 정도의 가격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맥주를 주문할 때보다 훨씬 까다롭게 강팔지게 책을 고른다. 맥주가 맛있다 고 주류회사를 욕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책 값이 비싸다고 푸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값어치를 못한다고 약담을 퍼부기도 한다.

물론 그것은 독서 문화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탓일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독자들이 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바람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책이 더 많은 독자를 만든다.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독자가 더 좋은 책을 만든다.

다. 노동자나 정치인이나 군인들의 취미가 독서라면 모르지만, 책을 읽고 거기에 배우는 것이 본업인 학생이 그 독서를 취미쯤으로 여기고 있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닌가."

노동자에게 노동이 취미, 정치인에게 정치가 취미, 군인들에게 군복무가 취미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학생에게 독서는 마땅히 본업이지 즐기 위해 선택하는 무엇일 수 없다는 말! 그런데 내 생각이 단지 학생들만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진 누구라도 독서를 '취미'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고칼럼



이재술

한두 편의 응돈이 몹시도 귀하던 어린 시절, 어느 날 학교 앞 아버지꾼에게 응돈을 몽땅 털렸습니다. 기표된 주사위가 담긴 컵을 알아맞히는 게임인데,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맞추고, 돈을 돌려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승률 100%를 확신하고 가진 돈을 전부 배팅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상황이 끝나야, 판을 깬 사람도, 그 판에서 돈을 불린 바람잡이도 모두 한 패거리였음을 알았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음을 알았습니다.

응돈을 한 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난히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럽고 열골이 화끈거렸던 것은 그 속임수에 넘어간 이유가 나의 우둔함 때문만이 아니라 허황된 욕심, 나쁜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많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어처구니없는 판단과 행동은 무지와 무능 탓보다는 허황된 욕심과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히 타당한 정권으로 명명될 현 정권이 대선이라는 판판을 열어 닫던 5년 전 그날, 이런 기막힌 결과가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했는지 알아 쫓을 수 있었던 것도 그때 그 깨달음 덕이었습니다. 허황된 욕

이 부자 만들어 준다 선동에 부화뇌동하여 판단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한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미 역사가 루테타로 규정된 5·16을 구국의 혁명이며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당당하게 발언하고 이런 망언이 먹혀들어가서 이 '멘붕'(멘탈 붕괴) 상태가 도래한 이유를 알게 해준 것 역시 그 깨달음 덕입니다.

기고



양대동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공기가 물처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필수품이다. 이렇게 공기가 물처럼 소중한 것이지만 그 소중함을 모르고 당연히 공급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다. 올해 여름철 최대전력사용량이 지난해보다 480만kw 증가한 7707만kw로 전망돼 최대 전력 발생시 예비전력은 400만kw이하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경우 올 여름철 전력 사용 피크 땀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 결과 약 548만kw에 해당하는 전력을 절감하는 국민적 역할을 우리는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전력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사용이 편리한 전기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넘겨버리는 에너지 낭비는 심각하다. 가전제품을 쓰지않으면서 플러그를 뽑지 않거나 아무 생각 없이 전기를 사용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반가정집 주태력 전력 소비량의 11%를 차지하는 전기가 낭비되고 있다.

'공부 잘하는 약' 부작용 심각...복용 방지 신경써야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약 중에 '염산메칠 페니데이트'라는 게 있다고 한다. 필자도 이런 전문적인 약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최근에 학교에 갔다가 선생님께서부터 듣고 알았다.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는 그 순간까지 항상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럴 것이다. 결국에는 다급해진 마음에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인터벋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집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욕심에 이런 약을 복용할지 모르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학부모가 관심을 가져 달라야 부탁을 하셔야 할 것이다.

경찰 간부가 대부업에 성폭행까지 하다니

경찰이 시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 경찰 간부가 여교사를 성폭행하는가 하면 불법 대부업에 투자해 고리를 뜯는 등 도무지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등

세상을 뒤집든 특종의 이면에는 늘 '딥 스트리트(Deep Throat)'가 있었다. 지난 1972년 6월 17일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피한 5명이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됐다.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사건은 워싱턴포스트지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기자가 익명의 고위 관리의 제보로 처음으로, 오히려 국민 여론을 악화시켜 1987년 민주화운동의 불씨가 됐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洛榮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김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외)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광고이메일부 227-9600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